‘19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 2PAGE. 연결 손익 – 매출 및 이익

안녕하십니까,
국제금융실장입니다.

당사 2019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자료 2페이지입니다.

당사는 2019년에 **매출 24조 4,226억원**, **영업이익 6,053억원**,
순이익 2,02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고조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 악화 및
고위험 거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무역 및 자회사의 이익은 부침을 겪기도 하였으나,
미얀마 가스전에서 가스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며
사상 첫 **6천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AD-7 광구, 암바토비 등 주요 자원개발 관련 자산에서
손상차손을 반영하며 자산 구조조정을 계속하였음에도,
전년비 75% 증가된 **2,024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19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3. 3PAGE. 연결 손익 – 부문별 상세

다음은 **부문별 상세 손익**입니다.
실적 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은 **5조 9,383억원, 영업이익**은 **97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무역 부문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2개 분기 연속 **6조원을 하회**하였으나,
향후 수익 중심의 트레이딩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익 안정성은 점차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977억원은 **무역 13억원 적자**, **무역 및 투자법인 24억원,**
미얀마 가스전 997억원 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거진 통상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수의 거래선에서 유동성 악화 등에 직면하며
무역 부문 및 자회사 부문에서 채권, 재고 관련 일회성 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미수 채권도 매각하여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56억원 하락하였습니다.

비록 다수의 거래선과 품목을 취급하는 상사의 특성상
국가 및 거래선 관련 리스크를 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계속

‘19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3. 3PAGE. 연결 손익 – 부문별 상세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란 미회수채권 매각 등
회사의 부실 채권/재고를 상당 부분을 정리함에 따라
향후 채권/재고 측면에서 일회성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 부문은
점증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고위험 여신 거래를 축소하고 있어 영업 호조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체질 강화를 통해 확보한 이익 안정성과
올 해 예상되는 글로벌 경기 반등세와 더불어
금년 1분기부터는 견조한 이익 추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얀마 가스전 및 본부별 손익은 아래 영업외 손익을 먼저 설명 드리고
뒷장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3PAGE. 연결 손익 – 부문별 상세

영업외손익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순이자비용은 전분기 유사한 **26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미얀마육상가스관은 569억 입방피트 판매에 힘입어 **117억원**의
지분법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미얀마육상가스관을 제외한 관계기업손익에서는
KOLNG가 **25억**의 이익 달성한 반면,
암바토비 프로젝트 **31억**, **웨타** 동광산에서 공정상의 이슈로 인한
36억원 손실 발생 등으로 지분법 **손실 3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4분기에 **기타손실**이 **496억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암바토비** 관련 손실 **316억원**,
선박 리스사업 손실 **78억원** 발생 등에 기인합니다.
암바토비 관련 손상은 회사의 자산 건전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해당 손상을 반영함에 따라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잔여 리스크액**은
12월말 기준 지분, 대여금 등을 포함 총 **1,071억원**입니다.
선박리스 손상은
당사가 영위하던 선박리스 사업에서 해운 시황 악화로 인한
거래 해운사의 부실화에 따른 손상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 손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비용 등의 영향으로 **세전이익**은 다소 아쉬운 **214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다음은 **본부별 경영실적**입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연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19년 누계 실적이고,
짙은 남색의 막대 그래프는 ‘19년 4분기 실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본부**의 성과가 두드러진 반면
식량화학본부와, **무역 및 투자법인**의 **영업이익**은 하락하였습니다.
부품소재본부는 지속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이익**과 이익률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해외철강본부는 시황 악화에 따른 경쟁 심화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53억원의 이란 장기 미회수 채권 상각으로
2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철강본부는 포스코산 내수 판매 증가로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판재가격 하락, 철스크랩 판매 감소로
7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철강본부 전체로는 분기 **매출 2조 9천억원**, **영업이익 100억원**을 달성하였고,
연간 **매출 12조 6천억원**, **영업이익 91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철강 관련 일회성 비용이 줄어들고
철강 시황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에너지본부는 미얀마 가스 판매 호조세 지속 및 LNG 트레이딩 물량 판매 증가로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습니다.

LNG는 당초 계획인 **75만톤**의 두 배에 가까운 **146만톤**을 취급하였으며,

미얀마 가스전은 사상 최대인 **2,162억 입방피트**를 판매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판매 현황은
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화학본부는 중국향 대두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화학사업에서 거래선 부실화 등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발생 및 가격 정산 손상 등의 영향으로 **분기 적자 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학사업에서의 채권 손실이 일회성이며,
식량 트레이딩 물량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작년 9월에 인수한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을 활용한
물량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올 해에는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본부는 자동차사업 CIS지역 판매 부진으로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지속된 구조조정 영향으로 이익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분기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무역 및 투자법인은 **무역 법인 적자 84억원**, **투자 법인 108억원 이익**으로
총 24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거래선 부실화 등 글로벌 시황 악화의 파고에
일부 무역법인에서 채권/재고 일회성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무역법인 전반 이익은 부진하였습니다만,

투자법인에서는
파푸아뉴기니 소재 두기의 **IPP**에서 **43억원**
미얀마 호텔에서 **10억원**의
팜사업에서 생물자산 평가 이익 등의 호조세로
투자법인 전체 **10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함에 따라

전체 이익은 **24억원** 흑자로 마감하였습니다.

5. 5PAGE. 가스전 및 철강 판매 현황

다음은 5페이지의 **가스전 및 철강 판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4분기 총 판매량 **569억** 입방피트,
일평균 6.2억 입방피트를 판매하였으며,
공통비배부전 기준 **1,1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기존 Take or Pay 물량 공급으로 현재 대비 낮은 단가의
물량 299억입방피트를 공급함에 따라
전기比 물량 증가에도 이익은 감소하였습니다만,

중국은 잔여 Take or Pay 물량 해소를 위해
올 해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판매량은 4분기 **총 356만톤**, 연간으로는 **총 1,200만톤**을 달성하였습니다.

4분기 포스코재 판매량은 내수 66만톤을 포함하여 총 215만톤이었으며,,
비포스코재 판매량은 141만톤으로
전분기比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4분기 당사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삼국간 거래 확대를 통한 물량 증가세를 이룬 만큼
‘20년 포스코산 내수 부문의 구조적 성장세와 더불어
철강 부문의 전반의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19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6. 6PAGE. 재무구조 및 지표 추이

다음은 6페이지 **재무구조 및 지표추이**입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이익 개선 및 운전자본 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어

‘19년말 기준 **총자산**은 **8조 9,594억원**이며,
부채는 1조 802억원 감소한 **5조 9,114억원**,
자본은 **3조 480억원** 입니다.

특히 **차입금**이 **전년대비 1조 2,564억원 감소**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48.1%포인트** 감소한 **193.9%**를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순이익, EBITDA 증가로
ROE는 **6.8%**, **ROA**는 **2.1%**로 상승하였고,
Debt to EBITDA 배수도 **3.7배**로 개선되는 등

올 한해 안정성, 수익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20년 경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입니다.

7. 8PAGE. 참고2. 2020 경영 계획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3조 5,043억원,
투자비는 4,725억으로 경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이유는
고위험 장기여신거래 축소 및 사업 재편으로
Trading사업의 체질 개선과 강건화를 이루어고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달성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철강사업은 그룹 내 디벨로핑 역할 확대로 시장 확대 및 수익성 제고에 힘쓰고
E&P사업은 기존에 계획된 개발, 탐사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는 한 편,
성장사업인 **LNG사업**에서는 LNG 액화 자산 투자 모색 등
Captive 수요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식량사업은 기존 투자자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트레이딩 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비도 전략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여
미얀마가스전 2, 3단계 개발 및 A-3 탐사 등 E&P사업에 2,991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사의 2019년도 4분기 실적 설명을 마무리하고,
Q&A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